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 성과보고회

디지털융합센터, 지역 기업 9곳 참여... AI·온라인몰 등 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는 지난 2일 '2025년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기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총 9개사가 참여했다. 데이터 가공 분야에는 에버젠, (주)메이지안웍스, (주)피치 등 3개 기업이, 데이터 구매 분야에는 (주)리썬치팜, (주)성립지이스, (주)에이앤지컴퍼니, (주)연을담다, (주)올리고컴퍼니, (주)정원컴퍼니 등 6개 기업이 선정됐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했다.

성과 발표에서는 (주)피치가 'Custom

가상 인플루언서 데이터 가공 및 AI 인플루언서 영상 생성 모델 개발' 사례를, 올리고컴퍼니가 '전통시장 온라인몰 실시간 가격 업데이트를 위한 상인 손글씨 데이터 수집·구축' 사례를 소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 성능 향상 △시제품 개발 △운영 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향후에도

기업 맞춤형 데이터 지원을 강화해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대규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들이 데이터의 가치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참여 기업이 기술·매출·제품 고도화 등 여러 성과를 낸 것은 매우 뜻깊은 결과"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이동준 연구사가 개발한 초고성능컴퓨터 원격 접속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아그로믹소'가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

발명특허대전 지식재산처장상 수상

농진청 '아그로믹소',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데이터분석

농촌진흥청 이동준 연구사가 개발한 초고성능컴퓨터 원격 접속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가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소켓 통신을 통한 다중 유전형 분석 방법' (특허출원 10-2024-0184110)의 독창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시상식은 12월 3일 열린 202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분석 속도·안정성·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3종의 유전형 분석 엔진이 탑재돼 있으며, 어려운 명령어 입력 없이도 다양한 자료의 유전형별 차이를 찾을 수 있어 인공지능 기반 생명 빅데이터 연구의 접근성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다.

특히 고성능 전산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도 슈퍼컴퓨터에 원활히 접속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현한 점이 돋보인다.

이는 기존 유전형 분석 환경이 오픈소스 조합이나 수작업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소켓 통신 기반의 독창적 구조로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팅센터 이태호 센터장은 "우수한 작품·가속 품종 개발을 가속화해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5개 공공기관과 사이버보안 공동 방어망 구축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일 전북혁신도시 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지역 주요 기관들과 함께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정보원 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했으며, 전북에서 사이버보안 담당 임원급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 기관들은 △사이버보안 임원급 교육과정 신설 △공동 현안 발굴 및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 △실무자 교육 강화 등 지역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해킹·랜섬웨어 위협 속에서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역 공동 방어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협약식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AI 도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공단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AI 기반 상담·민원 서비스 사례가 소개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조영훈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사이버보안은 단일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 대상 'NH소상공인 상생 아카데미' 열어

NH농협, 경영역량 강화 지원

NH농협은행이 지난 3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NH소상공인 상생 아카데미'를 열고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NH소상공인 상생 아카데미'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무·경영·마케팅 등 필수 전문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농협은행이 마련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참가비 없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및 업무효율화 전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분석 기법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가이드와 절세 노하우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발맞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참가자들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받으며 큰 호응을 보였다.

임용용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 부행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중요한 성장 축"이라며 "상생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교육·컨설팅·금

융지원이 결합된 포용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11월 서울·수원·부산·대전 등 4개 거점에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를 신설해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NH윌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LX공사,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 장관 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4년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LX공사는 연간 기준배출량 1천 톤 이상 공공기관 55곳 중 규모별(KB 그룹) 64개 기관 가운데, 감축률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올리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LX공사는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 13.2%를 훌쩍 넘어선 40.9%의 감축률을 기록했다.

경영 악화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투자 에너지 절약 실천' 방식을 도입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전환도 감축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LX공사는 총 1,126대의 차량을 기존 경유차에서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2022년 대비 2024년 사이 온실가스 1,109.4tCO2eq를 줄였다.

태양광 설비 확충 역시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공사는 전국 28개소에 1,64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1,838.816kW의 전력을 생산해 약 844.7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LX공사는 △에너지지킴이 활동 강화 △전 직원 대상 에너지 인식 개선 교육 △냉방기 순차 운휴 제도 △대기전력 차단 캠페인 등 생활 속 절약 실천 활동도 병행하며 조직 내 절감 문화를 정착시켰다.

어명소 사장은 "여러분 경영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의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공사용 자재 업체 선정 기준 전면 개정

전개공, ESG경영 강화 나서

전북개발공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 업체 선정 기준을 새롭게 개정했다.

공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제품, 저탄소 제품, 가족친화 인증, 일생 활균형 우수기업 인증 등을 받은 업체가 보다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공공기관의 ESG경영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취공사용 자재 구매 시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근로자 친화 요소 등을 적

극 반영해 지역 내 ESG경영 확산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업체들은 기존 기술력·가격 중심의 평가뿐 아니라 저탄소 인증 등 친환경 제품 보유 여부, 가족친화 경영 실천, 일·생활 균형에 기반한 기업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요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근 사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사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